



# 금융위기 전후의 인도 노동조합 활동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공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도 노동조합은 1990년 후기 경제 개방 이후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인도 노동조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케 하였다. 세계 금융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섬유업과 보석가공산업 등 인도 노동집약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대량해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늘어났다.

인도는 2009년부터 금융위기에서 급속히 회복되어 2010년에는 8%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불안정했던 노사관계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인도 노동조합은 좌파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노사 갈등에서 폭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인도 노동조합 활동과 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노동조합 활동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는 인도 노동시장에 대량해고를 가져왔다. 금융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인도의 자동차 선도 업체인 타타 모터스는 700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감원했다<sup>1)</sup>.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노동력 집약산업인 귀금속 가공업과 섬유산업에서 대량해고가 있었다. 2008년 말까지 섬유업계의 경우 약 70만 명이 해고되었으며, 귀금속 가공업의 경우 최대 100만 명까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산업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실업률에 대한 공식적인 인도 정부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외부 평가기관에서는 2009년 인도 실업률은 1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sup>2)</sup>.

경기침체 상황에서 인도 기업들은 직원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반면 남아 있는 직원들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인도 최대의 인력파견업체 팀리즈(TeamLease)사가 2009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55%가 ‘이전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임금이 삭감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 경기침체와 파업

경기침체로 사측은 비용 절감의 압박을 받았고, 근로자들은 해고와 임금 삭감, 그리고 가중된 업무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2008년 인도에서 노사 간의 갈등은 주로 해고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그리고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일어났다.

2008년 9월 인도 수도권 공업 지대 그레이트 노이다의 다국적 기업 CEO가 해고된 근로자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고로 대응하였다. 이후 해고된 근로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사측과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CEO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다<sup>4)</sup>. 2009년 1월, 다국적 기업 네슬레의 4,300명의 직원이 하루 동안 근무를 중단했고, 5월에도 파업이 있었다. 인도 네슬레의 5월 파업은 견습생 두 명을 내보내는

1) Business Standard, 2008년 10월 23일자, ‘Tata Motors disengages 700 temporary employees’  
<http://www.business-standard.com/india/storypage.php?tp=on&autono=48424>

2) CIA, 2010,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n/html>

3) Business Standard, 2009년 3월 4일자, ‘Employees glad keeping their jobs: survey.’

4) Hindustan Times, 2008년 9월 22일자, ‘Workers kill CEO in Noida.’

문제로 노조 측과 마찰이 있었고, 다음날 4명의 근로자가 정직 처분되자 노조가 사측에 반발하여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sup>5)</sup>. 2009년 5월 인도 자동차 회사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의 파업은 노조위원장이 과중한 업무에 대해 사측에 항의하면서 경영자대표와 마찰에서 시작되었다. 사측은 과중한 업무에 대해 항의하는 노조위원장을 정직 처분하였고,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여 5월 4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 파업은 2주간 지속되었다.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기 인도 공기업들의 파업 원인은 임금인상과 합병에 대한 반대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2009년 1월 인도 석유공사의 파업이 있었고 5월에는 인도 통신공사(MTNL)의 파업이 있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공공 은행들이 합병을 반대하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협박이 여러 번 있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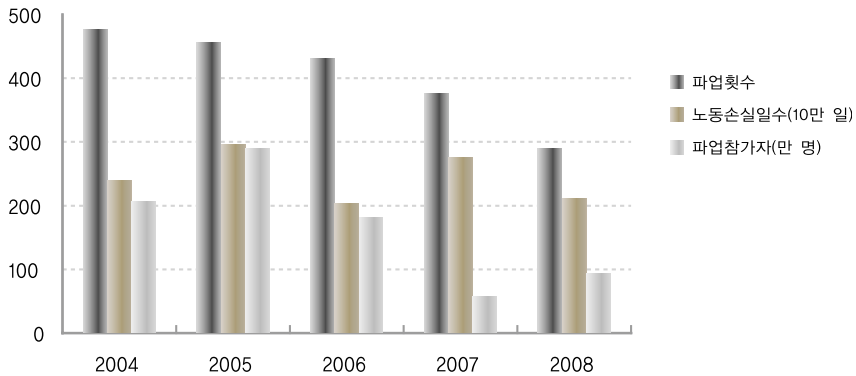
### 노동조합 활동의 경향

1990년 후기 경제 개방 이전까지 수정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온 인도는 공기업을 위주로 산업 활동이 진행되었고, 인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도 공기업이 주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 개방 이후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영화는 공기업의 축소로 이어졌다. 인도 정부는 과잉이던 공무원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부문 고용을 60% 줄였다. 그 결과 1998~2002년 사이 공공부문의 조합원 수는 40%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의 조합원이 감소하자 인도 노동조합은 노동가능인구 93%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비공공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를 통해 조직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이에 한계가 있으며, 인도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도들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도 노동조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은 세계 금융위기다. 2008년 금융위기로 해고 및 고용불안과 업무 가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조직적 대응을 위해 노조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sup>7)</sup>, 민간 기업의 노조는 ‘노조의

5) 정규직의 해고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인도 산업계에서 기업들은 교육을 위한 목적보다 유연성 있게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견습생을 채용한다.

6) Business Lines 2009년 2월 13일 ‘SBI associate bank staff to strike on Feb 17’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2009/02/13/stories/2009021351130600.htm>

[그림 1] 최근 5년간 인도 노동쟁의



주 : 2007년, 2008년 파업참가자 수에는 12월 수치가 포함되지 않음.  
출처: 인도 노동부 Labour Bureau, 2009.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인정' 할 것에 대한 꾸준한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인도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파업 규모와 참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부터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도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7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던 것이, 2008년에는 93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여 파업 참가자 수가 급속히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까지 산업 현장에서 재계약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노조 활동을 꺼려오던 비정규직이 금융위기 이후 노조활동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대량해고와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비정규직은 1차적인 임금삭감 및 해고의 대상이 되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자, 노조 활동을 통한 권리 찾기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8)</sup>.

7) Business World, 2009년 1월 16일 'Winter of Discontent' <http://www.businessworld.in/index.php/Corporate/Winter-Of-Discontent.html>

8) Business World, 2009년 6월 5일, 'The Summer of Discontent' <http://www.businessworld.in/index.php/Corporate/The-Summer-Of-Discontent.html> & Business World, 2009년 1월 16일 'Winter of Discontent' <http://www.businessworld.in/index.php/Corporate/Winter-Of-Discontent.html>

## ■ 경제 회복과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양상

2009년 해가 바뀌면서 인도 경제는 든든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 노동시장도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2010년 인도의 노동시장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록 경제는 회복되었지만 인도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금융위기를 겪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유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팀리즈(TeamLease)사는 <2010년 임시직 임금에 관한 연차 안내서>에서 인도 임시직 고용이 올해는 18%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sup>9)</sup>. 산업부문별로는 은행, 금융 및 보험 서비스(BFSI), 제조, IT 및 IT 관련 서비스업이 임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인도 IT 및 IT 관련 서비스 업체는 2010년 4~6월 동안 임시직의 비율이 전체의 1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생명공학, 태양 에너지 분야도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공기업의 민영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공기업 민영화는 2009년 5월 총선에서 통일진보 연합(UPA)이 재집권하면서 본격화될 것은 이미 예견되었다. 더구나 금융위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더욱 커져 회계년 2009~10년 GDP의 6.8%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sup>11)</sup>. 인도 정부는 인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피력하며 경기부양책의 철회와 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로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것을 표명하였다<sup>12)</sup>.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2010년부터 수익을 내는 다수의 공기업 지분도 매각할 것을 발표했다<sup>13)</sup>.

9) The Economic Times, 2010년 3월 10일자, "Temporary staff hiring to jump 18% this year: TeamLease."

10) Business Line, 2010년 3월 10일자, "Temp job market offers up to 15% pay hikes."

11) The Economic Times, 2010년 1월 30일자 "Deficit may top 6.8% on fertilizer subsidy, 3G delay"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Deficit-may-top-68-on-fertilizer-subsidy-3G-delay/articleshow/5515797.cms>

12) The Economic Times, 2010년 5월 27일 "PSU divestment nod will come with names of merchant bankers."

## 최근 주요 파업

인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기인 2009년 하반기의 주요 파업의 원인은 임금인상과 해고 반대, 그리고 노조의 인정이다. 2009년 9월 인도 북부의 수도권 공업 지대 구르가온 공업 지대의 부품 업체 RICO사에서 임금인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자 사측은 관련자 16명 정직 처분하였고, 이후 사측과 정직된 근로자가 무력 대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업무 교대를 위해 진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은 주변 70개 업체의 연쇄 파업으로 이어졌다. 인도 남부의 자동차 부품 업체 Pricol에서는 2009년 9월 부사장이 해직된 근로자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다. 사망한 부사장은 인사과로 부임한 후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좌파 계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경고하였다. 이후 42명의 근로자가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해고되자, 이들이 조직 폭력배를 동원, 회사로 침입하여 기물 파손과 부사장을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 지역 공업지대에는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인도 남부 첸나이 공업지대 현대 자동차 인도 법인에서도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2009년 4월에 정직된 근로자의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있었으며, 2009년 7월과 12월에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있었다.

공기업 인디아항공(Air India)은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 압박과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유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sup>14)</sup>. 재정 압박으로 사측이 인센티브 50% 삭감을 시도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조종사들은 2009년 9월에 사흘간 파업을 했고<sup>15)</sup>, 이들의 임금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사측을 협박했다. 2010년 4월 주정부 통신 공기업 BSNL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약 30만 명의 직원을 2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과 지분의 30%를 매각할 것, 그리고 고급 관리자들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

13) Business Line, 2010년 1월 16일자, 'Disinvestment talks trigger buying in PSUs'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2010/01/16/stories/2010011652321600.htm>

14) The Hindu Business Line, 2009년 6월 15일, 'Air India to delay salary payment'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2009/06/15/stories/2009061551590100.htm>

15) The Times of India, 2009년 9월 28일, 'Most AI pilots resume work, Delhi faction still on strike'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news/business/india-business/Air-India-cancels-14-flights-pilots-strike-continues/articleshow/5063990.cms>

받았다<sup>16</sup>). BSNL 이사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구조조정과 지분 매각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조합 측은 파업으로 대응하였다<sup>17</sup>).

### 최근 노동조합 활동 경향

인도 노동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파업 횟수와 참가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인도의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근로자들의 노조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경제위기에서 인도는 거의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노조 설립 및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대응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노조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근로자들은 노조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표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2009년부터 좌파 계열의 상급 노동조합이 파업의 배후 세력으로 가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9년 인도 수도권 구르가온 공업지대에 최소 35개 업체의 근로자가 좌파계열 노동조합 AITUC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RICO 이 사건의 배후에 좌파 계열 상급 노동단체인 AITUC와 CITU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ricol의 사건에서도 좌파 노조에 선동되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발표되었다. 인도 남부 첸나이 현대자동차 역시 좌파 노조(CITU)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카타와 케랄라 주를 근거지로 하던 좌파 계열의 노동조합들은 고용 상태의 불안과 사측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근로자들을 이들 노조에 가입시키며 다른 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파업이 드물던 인도 남부 지역에서 파업이 확장되고 있어 이 지역 기업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셋째, 최근의 파업은 계획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수도권 공업지대에서 있었던 이탈리아계 다국적 기업의 CEO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인 반면, 2009년 Pricol사 부사장의

16) Mint, 2010년 4월 14일, 'BSNL wants govt to foot bill for early retirement of 100,000.'

17) The Economic Times, 2010년 4월 20일 'BSNL employees call off strike: disinvestment to be referred to GoM'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articleshow/5835886.cms>

죽음은 해고된 근로자들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였고, 쇠몽둥이와 CCTV를 차단한 정황을 미루어 보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ICO 사건 역시 조사 과정 중 외부인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사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 관련 법률가들에 따르면, 최근 해고로 궁지에 몰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sup>18)</sup>.

## ■ 맺음말

2008년 금융위기로 해고와 임금삭감이 늘어나면서 일차적인 해고 대상이 되었던 비정규직의 노조 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파업 횟수나 참가자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거나 좌파 노동조합이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폭력성이 가중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좌파 노조는 2008년 금융위기로 노조와 노조 활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근로자들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며 세력을 넓혀가는 성향을 보인다.

근로자들의 인식 전환과 달리 인도 노동조합은 개선된 측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2009년 4~5월 총선거 전후의 일부 파업은 좌파 정당들에 의해 선동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원되는 측면에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해결 방법은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다. 인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타협을 통해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3자를 통해 조정하기 이전에 전면 파업을 시작한다. 따라서 노사 갈등이 발생한 지 3~4일 이내에 파업으로 급속히 발전하며,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되어 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자발적으로 사측에 협조하는 경향은 매우 드물었다.

최근 파업에 대해 인도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공기업 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18) Business World, 2009년 6월 5일, 'The Summer of Discontent' <http://www.businessworld.in/index.php/Corporate/The-Summer-Of-Discontent.html>



최근의 파업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판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즉각 업무 복귀에 응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파업 진압 이전에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화가 본격화될 경우 공기업의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노조의 배후 세력으로 유력하게 등장한 상급 좌파 노조들의 폭력성은 인도 노사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L**